

고등학생의 ‘진로와 직업’ 교육과 ‘진로심리검사’ 교육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백주경¹ · 김응용² · 천준협^{1*}

¹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전인치유상담전공, ²유일여자고등학교

Effects of Career Education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Satisfaction on Career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Ju Kyung Paik¹ · Eung Yong Kim² · Jun Hyep Chun^{1*}

¹Hollistic Therapy Major,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Seoul, Korea
²Yuil Girls' High School, Jeonju, Korea

(Received February 9, 2019 / Revised February 22, 2019 / Accepted February 26, 2019)

Abstract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of each activity in the high school students (568 students) after school career education (Career and vocation, Curriculum-related career education, Special lecture related to career, Entrance exam session, Career psychology test, Internet lecture), and then to analyze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the items Goal selection, Job information, Problem solving and Future plan by high, middle, and low group. **Methods:** Questionnaires administered to subjects after career education counseling education. **Results:** Career decision - making self - efficac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igh group than in the middle and low groups in the goal selection, job information, problem-solving and future planning by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on career and vocation, curriculum-related lectures, entrance examination session ($p < .001$).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special career lectures was in the order of low group > high group > middle group in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and the values of high and low group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middle group. The effect of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self - efficiency in Career psychological examination education was in the order of top > middle > low groups in goal choice and job information, and the high group valu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middle and low groups. In the problem solving and future planning,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high, middle, and low group valu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effect of the satisfaction of the internet course on the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was not significant, bu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high, middle, and low groups. Satisfaction with the internet course was low and did not affect the decision - making self - efficacy significantly. **Conclusion:**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the higher self - determination efficacy of goal selection, job information, problem solving and future plan.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Key word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education,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Psychological counseling, Goal choice

초록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 568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진로와 직업, ‘교과 연계 진로교육’, ‘진로관련 특강’, ‘입시설명회’, ‘진로심리검사’, ‘영상미디어(시청각)자료’)을 각 활동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인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따라서 3개의 상집단, 중집단 그리고 하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방법:** 대상자에게 설문지로 조사를 하였다. **결과:** ‘진로와 직업’, ‘교과 연계 진로교육’, ‘입시설명회’ 교육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 모두 상집단이 중집단 및 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진로관련 특강’ 교육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하집단 > 상집단 > 중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하집단 수치와 중집단의 수치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심리검사’ 교육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목표선택’ 및 ‘직업정

Authors positions – Jun Hyep Chun (Professor), Eung Yong Kim (Teacher), Ju Kyung Paik (Graduate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E-mail: ceochun@naver.com

보'에서는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집단 수치와 중·하집단의 수치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에서는 상·중·하집단 수치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유의성이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영상미디어(시청각)자료' 교육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에서는 상·중·하집단 간의 수치에 차이는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상미디어(시청각) 자료'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결론: 진로교육의 만족도가 높으면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고 본다.

주제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교육, 진로와 직업, 진로심리검사, 목표선택

서 론

진로와 직업에 관련하여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발달 영역에 적용하면서 진로 선택, 행동 및 개발 등과 관련된 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이라고 하였다(Betz & Hackett, 1981). Taylor & Betz(1983)는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조사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Bandura(1986)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하여 개인이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Bandura(1989)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행동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그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의 요인을 네 가지 근원에서 얻어진다고 논술했다. 즉, 과거에 성공경험이 있을 때, 타인의 성취감, 즉 대리적 경험을 보았을 때, 자기 주변 사람으로부터 할 수 있다는 언어적 설득,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기능의 강약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았을 때 등이다. 상기의 네 가지 근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한 두 개 이상의 사항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Bandura(1997)는 다양한 환경에 처한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효능감에 따라 과업수행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에 진로교육의 강화와 자기효능감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입된 진로교육 이론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체계화한 자료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Chang, 2013).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강화는 2011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면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에 한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 2013년부터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학생 진로탐색과 설계를 중시하는 교육 지원이 시작되었다(Choi, 2004; Jang, 2018). 그 후에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 시행되고,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2016~2020 기본계획'이 준비되면서 진로교육의 체계성과 양적인 확대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최근에는 진로교육의 실행 단계를 지나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본다.

Kim & Kang(2010)은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에서는 유의성 있게 향상되었으며,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등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유의하게 효과를 나타냈다. Lim(2005)은 진로교육의 성과 변인으로 진로개발 효능감과 학업 흥미 및 효능감에 대한 학교 수준의 변인들의 효과 조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교 수준의 변인보다 학생 수준의 변인이 더욱 관련성이 높았다고 하였다. 즉, 학교의 진로활동 중에는 교과 및 활동에서의 진로교육, 강연참여, 학교 및 학과정보 탐색이 학업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Choi & Kim(2012)은 중·고등학생의 진로 교육 경험과 학업 변인으로서 자기주도학습 태도와의 관계를 개인과 학교 수준에서는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검사, 직업체험, 진로강연, 직업체험이 자기주도학습 태도에 긍정적 효과가 유의하다고 하였다. Kim *et al.*(2014)는 중·고등학생의 진로체험 경험자와 미 경험자의 무작위로 매칭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진로 체험이 진로 관련 특성 및 학업 관련 특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Kang & Yon(2017)의 2007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고등학생 대상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논문 109편을 대상으로 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9편의 대상 논문으로부터 얻은 결론은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높은 효능감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Choi(2017)는 부모와의 소통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경로모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은 부모진로 지지와 학업성취 간에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완전 매개모형이 유지되었다. 반면, 남학생은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 및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aik *et al.*(2019)은 고등학생들의 학교 진로교육 상담 후에 진로결정사항에서는 '결정했으나 고려중이다'가 49.3%,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부모님의 조언'이 28%, '학교의

진로교육'의 효과는 52.2%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진로교육 참여현황'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94.7%) 및 '진로와 직업'(94%)이 높았고, '기업가 정신 및 창업체험'(10.6%)이 가장 낮았다. 진로교육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균치는 3.49점이었다. 가장 높은 항목은 '대학 혹은 전공체험'이 3.66점이었고, '교과 연계 진로교육'은 3.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국내 선행 연구들이 선진국에서 Betz & Hackett(1981), Taylor & Betz(1983) 및 Bandura(1986) 등의 연구에 사용한 도구와 논리를 이용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로교육의 강화와 효과를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할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Paik *et al.*(2019)이 보고한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를 개별적으로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및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중 '진로와 직업', '교과 연계 진로교육', '진로관련 특강', '입시설명회', '진로심리검사' 및 '영상미디어(시청각)자료' 활동에 참여 여부와 참여 학생의 활동별 만족도가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진로교육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활동 만족도가 학생의 진로개발이나 학습태도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낼 수 있다. 연구결과는 진로교육 활동 유형별 효과성을 파악하여 학술적 가치와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유용하리라 판단한다.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학생 56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임의 선정한 고등학교 1학년 312명, 2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설문지에 배포한 결과 최종적으로 592부가 회수되었고,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의 24부를 제외한 총 568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고 서명한 학생들만 설정하였다(Paik *et al.*, 201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을 Lee & Lee(2000) 및 Lee & Lee(2002)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Table 1. Reliability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easurement tool

Items	Question's number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Goal choice	1, 2, 3, 6, 8, 9, 11, 14, 18, 20, 22	11	.88
Job information	7, 15, 19, 21, 23, 24	6	.77
Problem solving	13, 17, 25	3	.66
Future plan	4, 5, 10, 12, 16	5	.66
Total		25	.91

는 직업정보(Job information), 목표선택(Goal choice), 미래계획(Future plan),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4개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따라서 3개의 상집단(a), 중집단(b) 그리고 하집단(c)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진로교육 활동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수준을 Jeong (2014)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진로교육 만족도는 각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와 학생 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이 평균값을 기본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전체 비율을 감안하여 상(a), 중(b), 하(c)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학교 진로교육 상담 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검사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검사 소요시간은 약 15분이었고, 고등학교 진로상담 교사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

(1) 연구를 수행하여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지는 통계처리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3) 진로교육 활동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진로와 직업' 교육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와 직업' 교육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의 연구 결과는 Table 2, Fig. 1에 제시하였다. '진로

Table 2. Satisfying levels of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Scheffe
Goal choice	High	204	3.59	.619	11.463	.000***	a>b, c
	Middle	250	3.31	.610			
	Low	79	3.39	.708			
	Sum	533	3.43	.641			
Job informations	High	204	3.45	.673	6.790	.001***	a>b, c
	Middle	250	3.23	.649			
	Low	79	3.26	.743			
	Sum	533	3.32	.680			
Problem solving	High	204	3.40	.761	3.516	.030*	a>c, b
	Middle	250	3.21	.741			
	Low	79	3.33	.784			
	Sum	533	3.30	.759			
Future plan	High	204	2.94	.654	8.424	.000***	a>c, b
	Middle	250	2.69	.639			
	Low	79	2.85	.700			
	Sum	533	2.81	.663			
Total average	High	204	3.45	.673	6.790	.001***	a>b, c
	Middle	250	3.23	.649			
	Low	79	3.26	.743			
	Sum	533	3.32	.68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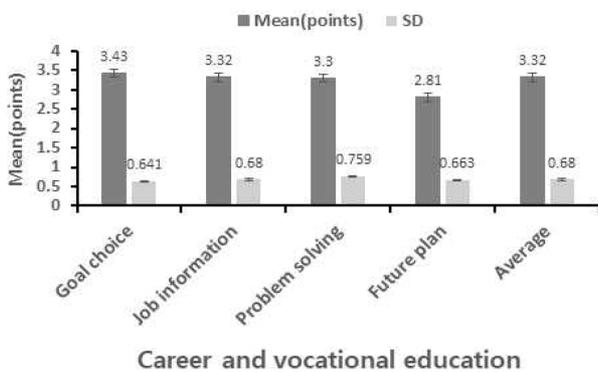


Fig. 1. Mean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ccording to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satisfaction.

와 직업(career and job) 교육의 만족도를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따라서 3개의 상집단(a), 중집단(b) 그리고 하집단(c)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항목별로 만족도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선택(goal choice)' 항목에서 상집단은 3.5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집단은 3.31점, 하집단은 3.39점대로 낮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직업정보(job information)'의 경우 상집단 3.4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하집단은 3.2점대로 낮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경우 상집단 3.4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하집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미래계획(future plan)'의 경우 상집단 2.94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하집단은 낮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전체 평균치는 상집단은 3.45점, 중집단은 3.23점, 하집단은 3.26점으로 나타났다. 상집단의 수치는 중·하집단의 수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Scheffe test)에서 '목표선택'에서는 만족도의 상·중·하집단에서 a의 수치는 b, c의 수치에 대해서 유의하였으나 b와 c 수치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업정보'의 경우 a의 수치는 b와 c의 수치에 대해서 유의하였으나 b와 c 수치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문제해결'의 경우 a의 수치는 b, c의 수치에 대해서 유의하였으나 b와 c 수치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미래계획'의 경우 a의 수치는 b, c의 수치에 대해서 유의하였으나 b와 c 수치 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만족도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a의 수치는 b, c의 수치에 대해서 유의하였으나 b와 c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진로와 직업' 교육의 만족도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상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집단과 하집단은 낮게 나타났다. 상집단 수치와 중·하집단의 수치 간에

Table 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curriculum-based career education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Scheffe
Goal choice	High	84	3.68	.659	6.326	.002**	a>b, c
	Middle	144	3.38	.602			
	Low	27	3.43	.641			
	Sum	255	3.49	.638			
Job information	High	84	3.67	.639	11.742	.000***	a>b, c
	Middle	144	3.30	.618			
	Low	27	3.17	.600			
	Sum	255	3.41	.649			
Problem solving	High	84	3.60	.722	9.053	.000***	a>a, c
	Middle	144	3.17	.755			
	Low	27	3.21	.796			
	Sum	255	3.32	.772			
Future plan	High	84	3.11	.602	8.100	.000***	a>b>c
	Middle	144	2.77	.619			
	Low	27	2.91	.509			
	Sum	255	2.90	.619			
Total	High	84	3.67	.639	11.742	.000***	a>b, c
	Middle	144	3.30	.618			
	Low	27	3.17	.600			
	Sum	255	3.41	.649			

* $p < .05$, ** $p < .01$, *** $p < .001$.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와 직업’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Song & Kang(2016)은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이 진로개발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진로와 직업’ 수업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교과 연계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교과 연계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구 결과는 Table 3, Fig. 2에 제시하였다. ‘교과 연계 진로교육’의 만족도를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따라서 3개의 상집단(a), 중집단(b) 그리고 하집단(c)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선택’의 경우 상집단은 3.68점, 중집단은 3.38점, 하집단은 3.43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집단 a수치와 중·하집단 b, c의 수치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2$).

‘직업정보’의 경우 상집단 3.67점, 중집단은 3.30점, 하집단은 3.17점 순으로 나타났다. a의 수치와 b, c의 수치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문제해결’의 경우 상집단 3.60점, 중집단은 3.17점, 하집단은 3.21점 순으로 나타났다. a의 수치와 b, c의 수치와는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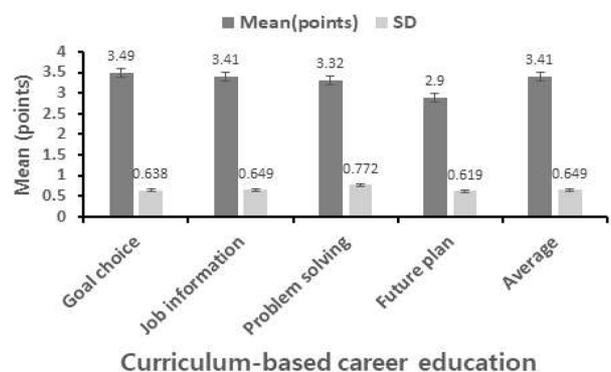


Fig. 2. Mea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curriculum-based career education.

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미래계획’의 경우 상집단 3.11점, 중집단은 2.77점, 하집단은 2.91점 순으로 나타났다. a의 수치와 b, c의 수치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전체 평균치에서도 상집단이 3.67점, 중집단이 3.30점, 하집단이 3.17점 순으로 a집단의 수치가 b, c집단의 수치에 대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1$).

위의 결과를 사후검증(Scheffe test)에 ‘목표선택’에서는 만족도의 상·중·하집단에서 a의 수치는 b와 c의 수치에 대하여 유의하였다. ‘직업정보’의 경우 a와 c는 b에 대하여 유의하였

Table 4.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ccording to satisfaction of special career-related lectures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Scheffe
Goal choice	High	210	3.56	.615	6.925	.001***	c, a>b
	Middle	200	3.32	.655			
	Low	26	3.52	.854			
	Sum	436	3.45	.659			
Job information	High	210	3.51	.634	12.492	.000***	c, a>b
	Middle	200	3.20	.674			
	Low	26	3.55	.655			
	Sum	436	3.37	.671			
Problem solving	High	210	3.40	.718	6.306	.002**	a>c>b
	Middle	200	3.18	.763			
	Low	26	3.59	.935			
	Sum	436	3.31	.762			
Future plan	High	210	2.93	.620	9.158	.000***	a>c>b
	Middle	200	2.70	.689			
	Low	26	3.15	.797			
	Sum	436	2.84	.676			
Total	High	210	3.51	.634	12.492	.000***	a, c>b
	Middle	200	3.20	.674			
	Low	26	3.55	.655			
	Sum	436	3.37	.671			

* p<.05, **p<.01, ***p<.001.

다. '문제해결'의 경우 a는 b와 c에 유의하였다. '미래계획'의 경우 a는 b와 c에 유의하였다. 최종 전체적으로 만족도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a는 b와 c에 대해서 유의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Table 3).

결론적으로 '교과 연계 진로교육'의 만족도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상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집단과 하집단은 낮게 나타났다. 상집단 수치와 중·하집단의 수치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과 연계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Kwak et al.(2014)은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어 학습효과를 유의하게 높인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교과 연계 진로교육' 수업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판단한다.

진로관련 특강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

'진로관련 특강(Special career-related lectures)'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구 결과는 Table 4, Fig. 3에 제시하였다. '진로관련 특강'의 만족도를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따라서 3개의 상집단(a), 중집단(b) 그리고 하집단(c)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항목별로 만족도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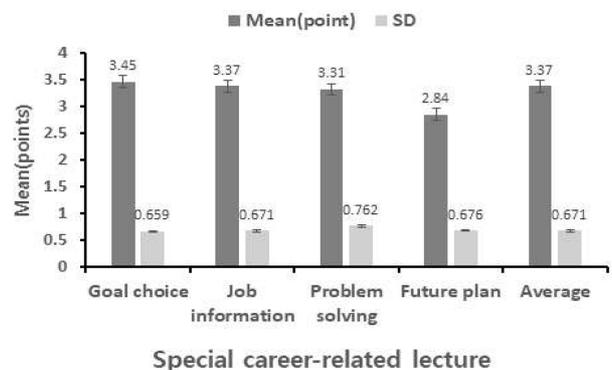


Fig. 3. Average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ccording to satisfaction of special career-related lectures.

'목표선택'의 경우 상집단은 3.56점, 하집단은 3.52점, 중집단은 3.32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하집단(a, c) 수치는 중집단(b)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었다(p<.001).

'직업정보'의 경우 하집단은 3.55점, 상집단은 3.51점, 중집단은 3.55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하집단(a, c) 수치는 중집단(b)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었다(p<.001).

'문제해결'의 경우 하집단은 3.59점, 상집단은 3.40점, 중집단은 3.18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하집단(a, c) 수치는 중집단

Table 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satisfaction at entrance examination session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Scheffe
Goal choice	high	169	3.62	.628	9.864	.000***	a>b>c
	middle	172	3.36	.622			
	low	23	3.16	.725			
	sum	364	3.47	.646			
Job information	high	169	3.60	.654	15.298	.000***	a>b>c
	middle	172	3.24	.630			
	low	23	3.12	.743			
	sum	364	3.40	.674			
Problem solving	high	169	3.48	.686	4.572	.011*	a>b, c
	middle	172	3.23	.822			
	low	23	3.29	.866			
	sum	364	3.35	.772			
Future plan	high	169	2.99	.676	6.990	.001***	a>b, c
	middle	172	2.72	.629			
	low	23	2.89	.878			
	sum	364	2.86	.679			
Total	high	169	3.60	.654	15.298	.000***	a>b>c
	middle	172	3.24	.630			
	low	23	3.12	.743			
	sum	364	3.40	.674			

*p<.05, **p<.01, ***p<.001.

(b)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미래계획’의 경우 하집단은 3.15점, 상집단은 2.93점, 중집단은 2.70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하집단(a, c) 수치는 중집단(b)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전체 평균치에서도 하집단 3.55점, 상집단 3.51점, 중집단 3.20점 순으로 나타났다. a 및 c집단의 수치가 b집단의 수치에 대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진로관련특강’에서는 하집단이 전체적으로 제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었다.

사후검증(Scheffe test)에서는 ‘목표선택’에서는 만족도의 상·중·하 집단, 즉 a의 수치와 c의 수치는 b의 수치에 대하여 유의하였다. ‘직업정보’의 경우 a와 c는 b에 대하여 유의하였다. ‘문제해결’의 경우 c는 a와 b에 유의하였다. ‘미래계획’의 경우 c는 a, b에 대해서 유의하였다. 최종 전체적으로 만족도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a와 c는 b에 대해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결론적으로 ‘진로관련 특강’ 교육의 만족도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하집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다음에 상집단이 높게 나타났고, 중집단은 제일 낮게 나타났다. 상·하집단 수치와 중집단의 수치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관련 특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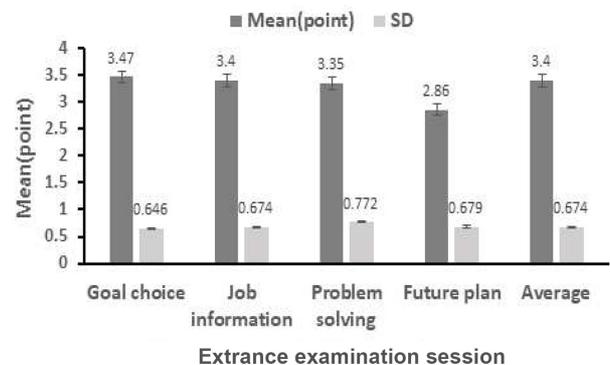


Fig. 4. Averag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satisfaction at entrance examination session.

효능감이 높았다. 유사한 연구로 Kwak et al.(2014) 및 Jang (2018)은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참여활동의 만족도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학습효과를 유의하게 높인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진로관련 특강’ 수업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판단한다.

‘입시설명회’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입시설명회(Examination session)’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구 결과는 Table 5, Fig. 4에 제시하였다. ‘입

Table 6.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career psychological test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Scheffe
Goal choice	high	253	3.55	.641	8.125	.000***	a>b>c
	middle	175	3.34	.584			
	low	36	3.23	.705			
	sum	464	3.45	.635			
Job information	high	253	3.45	.695	6.025	.003**	a>b, c
	middle	175	3.23	.621			
	low	36	3.25	.717			
	sum	464	3.35	.677			
Problem solving	high	253	3.36	.749	2.008	.135	-
	middle	175	3.21	.737			
	low	36	3.31	.810			
	sum	464	3.30	.751			
Future plan	high	253	2.87	.700	2.160	.116	-
	middle	175	2.76	.590			
	low	36	2.96	.793			
	sum	464	2.83	.670			
Total	high	253	3.45	.695	6.025	.003**	a>b, c
	middle	175	3.23	.621			
	low	36	3.25	.717			
	sum	464	3.35	.677			

* $p < .05$, ** $p < .01$, *** $p < .001$.

시설명회’ 교육의 만족도를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따라서 3개의 상집단(a), 중집단(b) 그리고 하집단(c)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항목별로 만족도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선택’의 경우 상집단은 3.62점, 중집단은 3.36점, 하집단은 3.16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집단의 수치가 중·하집단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직업정보’의 경우 상집단은 3.60점, 중집단은 3.24점, 하집단은 3.12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집단의 수치가 중·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문제해결’의 경우 상집단은 3.48점, 하집단은 3.29점, 중집단은 3.23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집단의 수치가 중·하집단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미래계획’의 경우 상집단은 2.99점, 하집단은 2.89점, 중집단은 2.72점 순으로 나타났다. 중·하집단은 낮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하집단이 중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치는 상집단은 3.60점, 중집단은 3.24점, 하집단은 3.12점으로 나타났다. 상집단의 수치가 중·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었다($p < .001$).

사후검증(Scheffe test)에서는 ‘목표선택’에서는 만족도의 상·중·하에서 a의 수치는 b와 c 수치에 대하여 유의하였다. ‘직업정보’의 경우 a는 b와 c에 대하여 유의하였다. ‘문제해결’의 경우 a는 b와 c에 유의하였고, b와 c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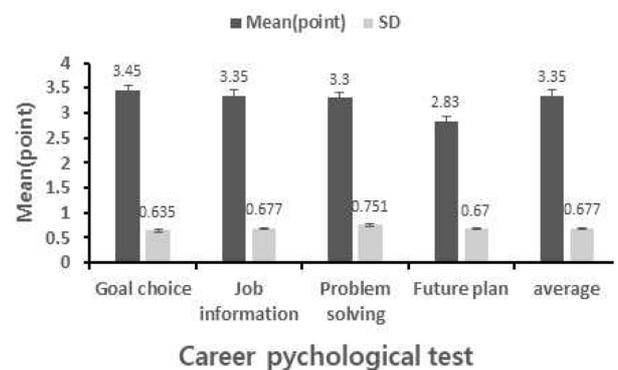


Fig. 5. Averag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career psychological test.

‘미래계획’의 경우 a는 b와 c에 유의하였고, b와 c는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적 평균 만족도도 a의 수치는 b와 c의 수치에 유의하였다(Table 5).

결론적으로 ‘입시설명회’ 교육의 만족도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상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집단과 하집단은 낮게 나타났다. 상집단 수치와 중·하집단의 수치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입시설명회’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유사한 연구로 Kwak et al.(2014) 및 Jang(2018)은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Table 7.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sed on satisfaction with visual media (audiovisual) materials

Items	Satisfying levels	N	M (point)	SD	F	p*	Scheffe
Goal choice	high	57	3.46	.769	.308	.735	-
	middle	59	3.41	.613			
	low	16	3.31	.601			
	sum	132	3.42	.680			
Job information	high	57	3.42	.741	.395	.675	-
	middle	59	3.31	.623			
	low	16	3.34	.657			
	sum	132	3.36	.677			
Problem solving	high	57	3.32	.765	.752	.474	-
	middle	59	3.16	.690			
	low	16	3.17	.689			
	sum	132	3.23	.722			
Future plan	high	57	2.94	.737	1.118	.330	-
	middle	59	2.75	.620			
	low	16	2.84	.590			
	sum	132	2.84	.671			
Total	high	59	3.30	.613	.395	.675	-
	middle	59	3.31	.623			
	low	16	3.34	.657			
	sum	132	3.36	.677			

* $p < .05$, ** $p < .01$, *** $p < .001$.

참여활동의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어 학습효과를 유의하게 높인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입시설명회’ 교육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판단한다.

‘진로심리검사’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심리검사(Career psychological examination)’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의 연구 결과는 Table 6, Fig. 5에 제시하였다. ‘진로심리검사’ 만족도를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따라서 3개의 상집단(a), 중집단(b) 그리고 하집단(c)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항목별로 만족도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선택’의 경우 상집단은 3.55점, 중집단은 3.34점, 하집단은 3.23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집단 수치는 중·하집단의 수치보다 높아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중집단의 수치는 하집단의 수치보다 높아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직업정보’의 경우 상집단 3.45점, 하집단은 3.25점, 중집단은 3.23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집단 수치는 중·하집단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었다 ($p < .01$). 중·하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해결’의 경우 상집단은 3.36점, 하집단은 3.31점, 중집단은 3.21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중·하집단 간의 수치는 차이는 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 <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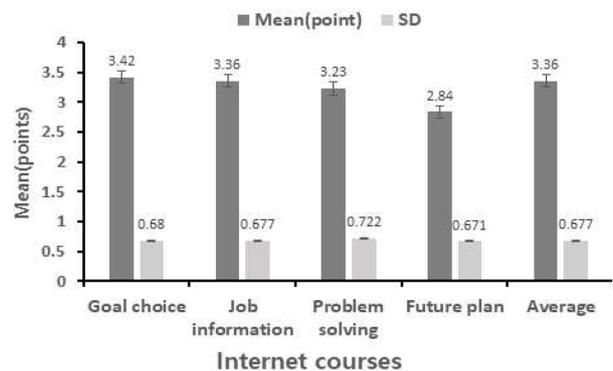


Fig. 6. Averag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sed on satisfaction with visual media (audiovisual) materials.

‘미래계획’의 경우 상집단은 2.87점, 하집단은 2.96점, 중집단은 2.76점 순으로 나타났다. 점수의 차이는 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p < .116$).

전체적인 평균치는 상집단은 3.45점, 하집단은 3.25점, 중집단은 3.23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치에서는 상집단 수치는 중·하집단의 수치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p < .003$).

위의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에서는 ‘목표선택’ 및 ‘직업정보’의 경우 a의 수치는 b, c의 수치에 대해서 유의하였고,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의 경우 a, b, c 수치 간에 차이는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전체 평균 만족도 수치는 a의 수치는 b,

c의 수치에 대해서 유의하였고, b와 c수치 간에도 유의성은 없었다(Table 6).

결론적으로 '진로심리검사' 교육의 만족도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목표선택' 및 '직업정보'에서는 상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집단과 하집단은 낮게 나타났다. 상집단 수치와 중·하집단의 수치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심리검사'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그러나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는 상·중·하집단 수치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진로심리검사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학생 중 82.7%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Jang *et al.*(2015)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진로검사 실시 여부를 살펴본 결과 98%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조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의 고등학생들의 진로심리검사 참여율이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나타난 평균보다 저조한 값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조사 지역 고등학교의 진로심리검사 참여 횟수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미디어(시청각)자료'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영상미디어(시청각)자료(Visual media (audiovisual) materials)'의 만족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연구 결과는 Table 7, Fig. 6에 제시하였다. '영상미디어(시청각)자료' 교육의 만족도를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따라서 3개의 상집단(a), 중집단(b) 그리고 하집단(c)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항목별로 만족도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선택'의 경우 상집단은 3.46점, 중집단은 3.41점, 하집단은 3.31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중·하집단 간의 수치는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308$).

'직업정보'의 경우 상집단 3.42점, 하집단은 3.34점, 중집단은 3.31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중·하집단 간의 수치는 차이는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395$).

'문제해결'의 경우 상집단은 3.32점, 하집단은 3.17점, 중집단은 3.16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중·하집단 간의 수치는 차이는 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752$).

'미래계획'의 경우 상집단은 2.94점, 하집단은 2.84점, 중집단은 2.75점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점수의 차이는 있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p < .330$).

전체적인 평균치는 상집단은 3.30점, 하집단은 3.34점, 중집단은 3.31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치에서도 상·중·하집단 간의 수치는 차이는 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395$). 결론적으로 '영상미디어(시청각)자료' 교육의 만족도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

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에서는 상·중·하집단 간의 수치는 차이는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상미디어(시청각)자료'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진로지식정보형 교육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교육 유형 중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진로지식정보형 교육에서는 단순히 진로와 직업의 정보를 일방적인 전달식의 교육 방법이 아닌 수요자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진로와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 568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진로와 직업', '교과 연계 진로교육', '진로관련 특강', '입시설명회', '진로심리검사', '영상미디어(시청각)자료'를 실시한 후에 각각의 활동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따라서 3개의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었다.

1) '진로와 직업', '교과 연계 진로교육'과 '입시설명회' 교육의 만족도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상집단이 중집단 및 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진로관련 특강'의 만족도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하집단 > 상집단 > 중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상·하집단 수치와 중집단의 수치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진로심리검사' 교육의 만족도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은 '목표선택' 및 '직업정보'에서는 상집단 > 중집단 > 하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집단 수치와 중·하집단의 수치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는 상·중·하집단 수치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유의성이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4) '영상미디어(시청각)자료' 교육의 만족도가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 항목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에서는 상·중·하집단 간의 수치는 차이는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상미디어(시청각)자료'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진로교육의 만족도가 높으면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및 '미래계획'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진로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References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behavioral change. *Psychol. Rev.*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 Prentice-Hall Pub., N.J., pp.1-15.
-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e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 Psych.* 25(5): 729-735.
-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Freeman and company, New York, p.21.
- Betz, N.E. and G. Hackett.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re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an and man. *J. Counsel. Psych.* 28(5): 399-410.
- Chang, S.M. 2013. Birth and formation of career education in Korea. *J. Career Edu. Res.* Fall conference, Fall : 1-29.
- Choi, K.C. 2004. A Study on changes in Korean career education over time. Kyungnam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pp.170-180.
- Choi, S. and D. Lee, 2017.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career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Examination of the gender difference model. *Edu. Culture Res.* 23(5): 295-318.
- Choi, Y.J. and J.E. Kim. 2012.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related variables and career education attitude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sian J. Edu.* 13(2): 81-106.
- Jang, H.J. 2018.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career education activities on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J. Career Edu. Res.* 31(1): 21-42.
- Jang, H.J., Y.K. Jung, M.K. Kim, J.Y. You, and J.H. Kim. 2017. 2017 Career education center operation project: Survey on the statu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areer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ejong. pp.5-10.
- Kang, Y.K. and S.H. Yon. 2017.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s f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J. Career Edu. Res.* 30(1): 1-20.
- Kim, K.H. H.J. Yoo, and B.D. Oh, 2014. The effect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Vocat. Edu. Res.* 33(3): 19-36.
- Lee, K.H. and H.J. Lee.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 J. Counsel. Psychol.* 12(1): 127-136.
- Lee, E.K. and H.S. Lee. 2002.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attitude and maturity. *Kor. J. Counsel. Psychother.* 14(1): 109-120.
- Lim, E. 2005. Analysis of school career education effect based on multilayer model (HLM). *First Kor. Edu. Vocat. Panel Seminar J.* 2005(1) : 639-661.
- Kim, O. and S.H. Kang. 2010. The effects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J. Career Edu. Res.* 24(3): 687-706.
- Kwak, M.J., T.D. Kim, and H.M. Kim.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with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iency. *Soc. Sci. Res.* 25(3): 151-174.
- Ministry of Education. 2016. The secon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16-2020).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Seoul, p.7-9.
- Paik, J.K., S.H. Cho, and J.H. Chun. 2019.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career education counselling on career decision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J. Naturopathy* 8(1): 11-20.
- Song, I.B. and H.Y. Kang. 2016. Analysis on the affecting factors of school career educational activities for junior-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J. Kor. Cont. Ass.* 16(10): 140-149.
- Taylor, K.M. and N.E. Betz.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 Vocat. Behavior* 2(1): 63-81.